

No.65

# Japan Weekly Digest

2010. 12. 11. ~ 12. 17.

## □ 금주의 이슈

- 민주당, 내년 총선 전초전에서 대패
- 日국가 이미지조사에서 “일본 50대, 한국 30대”
- 「올해의 사장」으로 손정의 대표 선정
- 소니, 노벨화학상 네기시 교수 특별고문 위촉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간 총리, 법인세 5% 감세 결정
- 도시바, 스마트폰용 LCD공장 1000억엔 투자
- 韓·日·佛연합, 베트남 정유공장건설 50억불 수주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심의회에서 「TPP참가」 주장 잇따라
- 아시아공동 가전·태양전지 성능평가 국제표준 제안
- 닛산-미쓰비시, 공동개발 등 포괄적 제휴 합의

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경제산업성, 「농업산업화지원 워킹그룹(WG)」 설치



**협회 한일경제협회**  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□ 금주의 이슈

- 민주당, 내년 총선 전초전에서 대패
  - 내년 봄에 있을 통일지방선거 전초전으로 주목을 끌었던 이바라기(茨城)현 의원선거(의원정수 65)에 민주당에서 24명이 출마했으나 6명만 당선
  - 민주당의 후지타 참의원의원은 “실언문제, 법안 통과가 적었던 문제 등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이 패배의 요인”이라고 언급
  - \* 자민당은 39석을 차지하여 과반수 확보, 공명당은 4석을 확보하여 현상유지
- 日국가 이미지조사에서 “일본 50대, 한국 30대”
  - 하쿠호도(博報堂)생활종합연구소에서 1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, 일본의 나이 이미지는 51.7세로 아시아, 유럽, 미국 등 9개 국가 가운데 가장 늙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  - 일본이 나이 든 나라로 응답한 이유에 대해 **“일본이 길을 잃고 기력이 다한 채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”** 때문이라고 설명
  - \* 한국 35.6세, 중국 31.5세, 인도 32.7세, 미국 47.3세
- 「올해의 사장」으로 손정의 대표 선정
  - 일본 산업능력대학이 16일, 기업경영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「올해의 사장」으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대표가 선정
  - 「2010년 최우수 경영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」라는 질문에 100명의 경영자가 소프트뱅크의 **손정의 대표를 지목**
  - \* 2위는 UNIQLO 야나이 사장, 3위는 도요타 아키오 사장
- 소니, 노벨화학상 네기시 교수 특별고문 위촉
  - 소니가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네기시 에이이치 美 퍼듀대 교수를 특별 연구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발표
  - 네기시 교수의 연구업적인 ‘혁신적 유기 합성법’을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주목받는 유기 전기발광소자(EL) 연구’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
  - \* 네기시 교수는 연4회 정도 첨단기술 연구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예정

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### ○ 간 총리, 법인세 5% 감세 결정

- 日정부는 13일, 11년도 세제개정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현행 40.69%에서 5% 감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
- 간 총리는 디플레 극복하고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. 노다 재무장관, 겐바 국가전략담당장관에게 직접 지시
- \* 국세 인하는 99년 4.5% 인하 이후 처음
- 총리는 "정부는 과감하게 법인세를 인하하고, 경제계는 국내투자나 고용확대에 사용, 국내 경기를 끌어 올림으로써 디플레를 벗어나고 싶다"고 강조
- \*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국세 1.5조이며, 기업관련 세제우대조치 등의 재검토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6500억엔 정도

### ○ 도시바, 스마트폰용 LCD공장 1000억엔 투자

- 도시바가 스마트폰용(고기능 휴대전화)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소형 LCD공장을 이시카와현에 건설한다고 발표
- 도시바는 스마트폰에 적합한 고정밀, 저소비 전력형 LCD의 부족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
- 투자규모는 1000억엔이며, 2011년 후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. 생산된 LCD는 공동 투자한 애플사에 공급할 예정
- \* 디스플레이서치에서 분석한 중소형 액정LCD 시장 규모는 09년 176억달러 → 10년 203억달러

### ○ 韓·日·佛연합, 베트남 정유공장건설 50억불 수주

- 韓·日·佛 등 5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합작사업체(JV)가 베트남에서 발주하는 최대 정유소건설공사에서 최우선 교섭권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밝혀짐
- 합작사업체는 일본의 닛키와 지요다화공건설, 한국의 SK건설과 GS건설, 프랑스의 테크닉 등이 참여
- \* 건설비는 50억달러 수준이지만, 용지조성, 항만정비까지 포함하면 총 80억달러로 추정
- 이번 입찰에는 닛키를 주축으로 한 JV와 이탈리아-한국-대만연합 등이 경합하였으나, 베트남에서 시공실적이 있는 닛키JV가 최종수주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### ○ 경산성, 심의회에서 「TPP 참가」 주장 잇따라

- 경산성은 14일, 산업구조심의회 통상정책부회(와타나베 부회장)를 개최
  - 경제연계협정(EPA), 자유무역협정(FTA),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(APEC) 등 세계 무역기구의 상황과 향후 방침에 대해 논의
  -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TPP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, 국민적인 논의나 합의가 부족했다고 문제제기
  - \* 와타나베 부회장(도요타 부회장)은 5월회의 이후, TPP 협의시작 표명, 신흥국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서 「큰 전진이 있었다」고 평가

### ○ 아시아국가와 공동으로 가전·태양전지 성능평가 국제표준 제안

- 경제산업성은 14일, 아시아 각국과 공동으로 가전·태양전지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해 국제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
  - 상대국 시험기관과 협력하여 아시아지역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맞는 에너지절약형 가전, 태양전지의 성능평가방법을 체계화하고, 국제표준화기관에 공동 제안, 인증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
  - \* 일본이 국제표준화를 위해 아시아 각국과 공동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
  - 냉장고나 에어컨의 소비전력량, 태양전지의 장기내구성(제품수명) 등의 시험·평가 방법을 공동개발하고,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 제안

### ○ 닛산-미쓰비시, 공동개발 등 포괄적 제휴 합의

- 닛산(日産)자동차와 미쓰비시(三菱)자동차는 경자동차 공동개발을 포함,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제휴에 합의
  - 공동 출자하여 경자동차 개발회사를 설립
  - 닛산과 미쓰비시는 차량설계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경쟁력 있는 신형차를 개발하고, 공동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삭감시켜 나간다는 전략
  - 요미우리신문은 두 회사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연간판매대수가 약 700만대인 닛산-르노-미쓰비시가 폴크스바겐-스즈키, 도요타, GM에 이어 세계 4위 자동차 그룹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

## “경제산업성, 「농업산업화지원 워킹그룹(WG)」 설치”

□ 경제산업성은 12월 9일, 국내농업대책을 검토하는 「농업산업화지원 워킹그룹(WG)」을 설치

- 마쓰시타 경제산업성 부대신을 의장으로 관계 부국장, 지방경제산업국장, 일본경단련,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등 관계 단체간부 약30명으로 구성
- \* 기타, 내각부 오키나와(沖縄) 종합사무국경제산업부장,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이사 등이 참여

□ 농업산업화지원 워킹그룹(WG) 설치 배경

- 경제산업성이 갖고 있는 기업의 수익력 지원 경험을 살려, 가격이 싼 농작물이 수입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농업으로 육성시키자는 취지
- 경제산업성이 농림수산성의 소관인 농업지원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 협정(TPP)참가를 위해 신속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분석
-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농업강화를 위해 간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「식(食)과 농림어업의 재생 추진 본부」를 설치
- 그러나, **TPP에 소극적인 멤버도 많은데다가 벌써부터 논의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업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,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**

□ 워킹그룹의 기능

- 워킹그룹은 농업의 산업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△농업의 산업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기획입안 및 그 실행에 관한 사무총괄, △경제산업성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농업 산업화를 추진(워킹그룹 서무는 관계부서 협력을 얻어 지역경제 산업정책과에서 담당)

□ 구체적인 검토 사항

- △농산물의 국내유통 원활화, △수출지원, △식품가공산업의 강화, △실내에서 야채 등을 효율적으로 재배하는「식물공장」설립, △농촌지역의 공장유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
- 워킹그룹은 농업관계자에 대한 현장 조사나 지역 농민의 니즈를 파악한 후,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

□ 일본정부도 무역자유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강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, 아직은 초기단계

- \* 「식(食)과 농림어업 재생추진본부」, 「식(食)과 농림어업 재생실행회의」
- 경산성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책은 일본의 EPA, FTA, TPP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

## 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일본에서 의료 투어리즘 발전 가능성』 다이와 총합연구소, 12월14일

\*출처: <http://www.dir.co.jp/souken/consulting/report/emg-mkt/newsletter/10121001newsletter.pdf>

- (2) 『큐슈 산관학 연계』 큐슈경제산업국, 12월14일

\*출처: <http://www.kyushu.meti.go.jp/seisaku/sangakukan/kyodokenkyu/21fysangakurenkei.pdf>

- (3) 『정책요인이 개인소비에 미치는 영향』 이토츄, 12월14일

\*출처: [http://www.itochu.co.jp/ja/business/economic\\_monitor/pdf/2010/20101213\\_2010-196\\_J\\_Eco2.pdf](http://www.itochu.co.jp/ja/business/economic_monitor/pdf/2010/20101213_2010-196_J_Eco2.pdf)

- (4) 『생산성백서 2010』 일본생산성본부, 12월15일

\*출처: <http://activity.jpc-net.jp/detail/01.data/activity001011/attached.pdf>

- (5) 『왜 일본정부채무는 세계 최악이 되었는가』 일본증권경제연구소, 12월15일

\*출처: [http://www.jsri.or.jp/web/publish/report/pdf/1663/1663\\_01.pdf](http://www.jsri.or.jp/web/publish/report/pdf/1663/1663_01.pdf)

- (6) 『중국기업의 일본진출 특징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12월16일

\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kikan82/82masuda.pdf>

## 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12월 13일(월)	○ 민주당 간부회의 개최
12월 14일(화)	○ 간 총리 오키나와 방문 ○ 야마구치 공명당대표 중국방문(중국정상과 면담) ○ 10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 ○ 11월 수도권 아파트시장동향 발표(부동산경제연구소)
12월 15일(수)	○ 정부, 2011년도 세제개정 각료회의 결정 * 법인세 5%인하 결정 ○ 10월 제3차 산업활동지수 발표(경산성)
12월 16일(목)	○ 한·중·일 3국 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서명식 개최(서울) *내년초 한국에 설립
12월 17일(금)	○ 7~9월 자금순환통계 발표(일본은행)